

실리콘투 (257720)

지분 팔았지만, 판은 안 깨졌다

반복적 지분 출회 가능성, 타이밍 불확실성이 시장 부담 요인

최근 대표이사 및 일부 임원의 지분 매도 공시 이후 주가는 13% 하락했으나, 이는 기업 펀더멘털이나 실적 전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김성운 대표의 매도는 수백억 원 규모의 증여세를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기 위한 유동화 조치이며, 일부 임원진은 장기 보유한 지분의 일부를 차익 실현한 성격이다. 이들 모두 향후 몇 년간 일정 물량의 반복적인 매도는 불가피한 구조다. 지분율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나, 시장은 앞으로 지분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점과, 그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더 걱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확장·브랜드 믹스 개선, 실적 모멘텀 유호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69,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025~2026년 평균 EPS에 목표 PER 20배를 적용해 산출하였다. 2025년 2분기 연결 영업 이익은 65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549억 원)를 18.4%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성장 브랜드 확대와 유럽 중심의 유통 채널 확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프랑스·영국 등 유럽 시장 내 리테일 기반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중동향 초도 물량 출하와 신규 시장 진입(중남미)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브랜드 믹스 또한 달바, 셀리맥스, 퓨리토서울 등 신형 고성장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기존의 메디큐브·닥터엘시아와 함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코스알엑스 또한 3분기부터는 협업 범위 확대를 통해 물량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적 측면에서 구조적 개선 흐름이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고, 마진·브랜드·지역 모두에서 질적 성장이 병행되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수급 이슈에 대한 단기적 변동성보다, 실적 기반의 펀더멘털 개선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은 회장/유통
seungeun.lee@yuantakorea.com

김도엽 Research Assistant
doyub.kim@yuantakorea.com

BUY (M)

목표주가 69,000원 (U)

직전 목표주가 49,000원

현재주가 (7/3) 52,900원

상승여력 30%

시가총액 32,360억원

총발행주식수 65,576,252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749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649,078주

52주 고/저 61,800원 / 23,550원

외인지분율 8.77%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김성운 외 15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1.9 97.4 18.7

상대 (4.9) 70.1 25.1

절대 (달러환산) 3.0 113.0 21.5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매출액	3,429	6,915	11,397	14,700
영업이익	478	1,376	2,427	3,200
지배순이익	380	1,207	1,950	2,560
PER	9.6	14.5	16.6	12.7
PBR	2.7	6.7	7.5	4.7
EV/EBITDA	7.7	12.7	12.4	9.5
ROE	32.9	60.9	53.9	42.7

자료: 유안타증권

1. 실리콘투 주요 경영진 지분 매도

2025년 7월 2일, 실리콘투는 김성운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1.18%에서 50.53%로 0.65%p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김성운 대표와 친인척, 일부 임원은 총 42만 5,062주를 약 255억 원에 매도했다. 해당 공시 이후 7월 2일부터 3일까지 실리콘투 주가는 13.6% 하락했다.

1. 공시는 거래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

2025년 6월 30일, 실리콘투 주요 경영진의 지분 매도가 있었다. 공시는 7월 2일에 이뤄졌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기준이 거래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는 체결 후 2영업일 뒤에 결제되며, 공시는 이 결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출된다. 이번 공시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향후에는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분할 공시나 사전 안내도 검토할 계획이다.

2. 김성운 대표이사 매도는 증여세 납부 목적

김성운 대표이사의 매도 목적은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닌, 수백억 원 규모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유동화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수증한 지분에 대한 세금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매도는 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3. 임원 매도는 장기보유 지분의 일부 실현

기타 임원진 대부분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한 구성원으로, IPO 이전부터 지분을 보유해 왔다. 이번 매도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 성격이 강하며, 이들은 경영권을 보유한 인물들이 아니다. 실리콘투는 이번에 공시 의무가 없던 미등기 임원들의 매도 내역까지 자율공시로 포함시켰다. 동사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4. 매도 시점은 신고가 근접 구간

6월 말은 실리콘투 주가가 6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기록한 시점이다. 전고점을 경신한 직후였고, 경영진 개인들도 심리적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구간이었다. 김성운 대표이사과 미등기 임원들의 매도 시점이 유사한 이유 역시 이러한 심리에 기반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5. 김성운 대표이사 지분율과 경영권 방향성

김성운 대표이사의 지분율 계획은 사적 재산권 영역이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행보는 분명히 경영권 안정화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3년 이후 부모로부터 수증을 통해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율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수년간의 계획된 지배구조 전략의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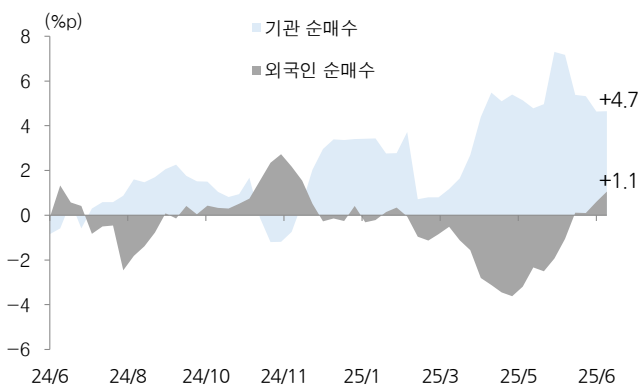
6. 주식담보대출은 현실적 대안이 아님

주식담보대출 역시 검토된 바 있으나, 이미 일부 지분은 연부연납 담보로 수원지방법원에 설정된 상태다. 주담대 한도는 제한적이고, 이자 부담도 적지 않다. 오히려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김성운 대표이사 개인도 현재는 주담대를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7. 자율공시 확대는 정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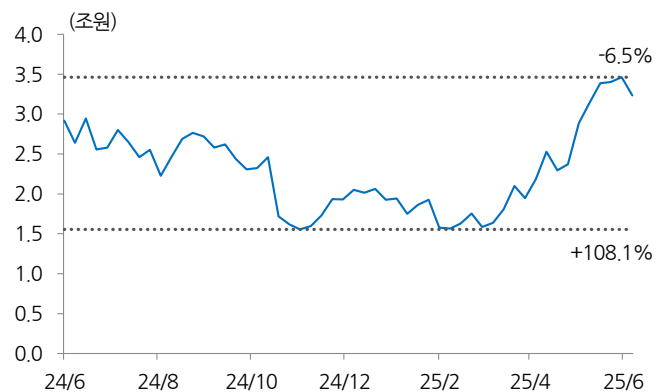
과거에는 미등기 임원 매도에 대해 공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리콘투가 선제적으로 자율공시 범위를 확대해 투자자와의 신뢰를 높이하고자 했다. 실리콘투는 앞으로 거래일 기준, 공시 시점, 내용 구성 등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g. 1] 실리콘투 국내 기관과 외국인 누적순매수 비중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ig. 2] 실리콘투 시가총액과 최고/최저가 대비 현재가 괴리율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I. 목표주가 및 실적 추정

1. 지분 매도 영향 제한적, 실적 모멘텀 반영해 목표주가 상향

동사에 대해 투자자의견 Buy 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69,000원으로 상향한다. 목표주가는 2025~2026년 평균 EPS 에 목표 PER 20배를 적용해 산출하였다. 최근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 이슈로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으나, 해당 이벤트는 기업 펀더멘털이나 실적 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해석된다.

- ①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50억 원으로,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인 549억 원을 18.4%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신규 리테일 채널 확대가 본격화되며, 브랜드 협상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③ 특히 이번 지분 매도는 대표이사의 상속·증여세 납부 목적의 일시적 유동화와, 임원진의 일부 차익 실현에 따른 것으로, 지배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실적 피크아웃 우려와도 무관하다.
- ④ 오히려 3분기부터는 중동향 출하 본격화와 신규 브랜드 성장 등으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실적과 마진 구조, 글로벌 유통 채널 확장 측면에서 구조적 개선 흐름이 유효한 가운데, 최근 주가 조정은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되며, 중장기 매수 접근이 유효한 구간으로 판단된다.

[Fig. 3] 실리콘투 목표주가 산정 PER Multiple

	2025F	2026F	비고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1,950	2,560	
주식수 (만주)	6,558	6,558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총수
EPS (원)	2,974	3,904	25~26F 평균 EPS
적정 PER (배)	20	20	
적정주가 (원)	59,473	78,077	69,000원
현재주가(7/3) (원)	52,900	52,900	
상승여력 (%)	12.4	47.6	상승여력 30%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ig. 4] 실리콘투 실적 추정

(단위: 억원, %)

	1Q24	2Q24	3Q24	4Q24	2024	1Q25	2Q25E	3Q25E	4Q25E	2025E
[연결] 매출액	1,499	1,814	1,867	1,736	6,915	2,457	2,740	3,000	3,200	11,397
YoY	158	132	85	64	102	64	51	61	84	65
QoQ	42	21	3	-7		42	12	9	7	
North America	569	623	650	373	2,215	452	497	500	530	1,979
Europe	283	444	429	472	1,628	813	1,023	1,210	1,239	4,285
Asia	372	376	354	429	1,531	592	600	580	630	2,402
Middle East	98	144	194	189	625	260	230	270	310	1,070
Oceania	60	62	75	75	272	68	70	80	82	300
CIS	61	85	59	80	285	120	140	150	160	570
Africa	19	17	22	33	91	27	30	30	33	120
South America	37	63	82	86	268	124	150	180	216	670
[법인별 매출]										
CA	1,257	1,542	1,663	1,612	6,074	2,277	2,530	2,790	2,989	10,586
PA	49	57	61	98	264	99	110	120	131	460
Drop Shipping	193	215	137	20	565	81	100	90	79	350
Others	1	0	5	6	12	0	0	0	1	1
매출총이익	506	616	645	562	2,328	777	960	1,030	1,120	3,887
매출총이익률	33.7	34.0	34.5	32.4	33.7	31.6	35.0	34.3	35.0	34.1
판매비와관리비	211	227	219	296	953	299	310	330	520	1,459
판관비율	14.1	12.5	11.7	17.0	13.8	12.2	11.3	11.0	16.3	12.8
인건비	48	53	55	120	276	81	80	87	220	468
인건비율	3.2	2.9	2.9	6.9	4.0	3.3	2.9	2.9	6.9	4.1
광고선전비	16	15	14	26	71	34	34	34	53	155
광고선전비율	1.1	0.8	0.8	1.5	1.0	1.4	1.2	1.1	1.7	1.4
운반비	27	37	46	48	158	57	74	80	92	303
운반비율	1.8	2.0	2.5	2.8	2.3	2.3	2.7	2.7	2.9	2.7
지급수수료	86	75	65	51	277	67	70	82	90	309
지급수수료율	5.8	4.1	3.5	2.9	4.0	2.7	2.6	2.7	2.8	2.7
영업이익	294	389	426	266	1,376	477	650	700	600	2,427
YoY	297	275	182	79	188	62	67	64	126	76
영업이익률	19.6	21.5	22.8	15.3	19.9	19.4	23.7	23.3	18.8	21.3

자료: 실리콘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ig. 5] 실리콘투 실적 추정 변경 내역

(단위: 억원, %, %p)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대비		
	2Q25E	2025E	2026E	2Q25E	2025E	2026E	2Q25E	2025E	2026E
매출액	2,800	10,857	13,000	2,740	11,397	14,700	-2%	+5%	+13%
영업이익	560	2,087	2,600	650	2,427	3,200	+16%	+16%	+23%
OPM	20.0%	19.2%	20.0%	23.7%	21.3%	21.8%	+3.7%p	+2.1%p	+1.8%p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유럽 매출 비중 확대, 리테일 채널 커버리지 강화

2분기에도 유럽, 아시아, 미국, 중동 순의 매출 비중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 변화 요인이 없었던 만큼, 1분기와 유사한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분기 유럽 매출액은 1,023억 원(+130% YoY)이 예상된다. 동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를 거점으로 한 유럽 내 입지 확대가 뚜렷하다. 폴란드 내 자사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 유일한 K-뷰티 유통사로, 현지에서의 유통 주도권을 확보한 점이 강점이다. 회사 측은 유럽 수출 비중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폴란드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사는 유럽 시장 내에서 오프라인 유통망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영국 부츠(BOOTS)를 비롯해 로스만(Rossmann), 디엠(DM), 노티노(Notino), 세포라(Sephora), 슈퍼드러그(Superdrug) 등 주요 리테일 체인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 전역에서 대형 유통 채널과의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비자 접점 확대 전략을 실행 중임을 보여준다.

유럽 유통망 확대는 대형 리테일러와의 협업뿐 아니라, 자사 직영 채널인 모이다(MOIDA) 매장을 통한 브랜드 접점 확장 전략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유럽 주요 도시에 6개 매장을 오픈했으며, 2025년 연말까지 총 10개 출점을 목표로 한다. 단순 진열 공간이 아닌 브랜드 체험과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허브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파리에 오픈한 모이다 매장은 평일 기준 하루 방문객 200명, 매출 700만~1천만 원, 주말에는 500명 이상이 몰려 일매출 2,500만 원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순 유통매장이 아닌,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체험형 공간으로서의 효과를 입증한다.

영국 매장은 모이다 전체 매장 중 방문객 수와 매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K-뷰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매장 반응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 유통망과 플래그십 스토어 전략이 맞물리며, 실리콘투의 유럽 내 브랜드 입지는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

[Fig. 6] 국내 화장품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전체	YoY	MoM	중국	YoY	MoM	홍콩	YoY	MoM	일본	YoY	MoM	미국	YoY	MoM	유럽	YoY	MoM
2021	8,928	21.3		4,732	28.3		565	-19.4		785	21.7		824	33.4		702	29.6	
2022	7,690	-13.9		3,451	-27.1		387	-31.5		735	-6.4		826	0.3		714	1.7	
2023	8,142	5.9		2,618	-24.2		492	27.2		793	7.8		1,185	43.4		1,056	48.0	
2024/01	769	69.4	15.1	240	83.3	31.2	40	64.0	28.7	70	32.7	15.2	115	78.4	9.9	96	55.6	11.0
2024/02	689	10.4	-10.4	165	-21.5	-31.4	37	-9.4	-7.8	81	27.6	15.4	118	54.2	3.1	91	19.4	-5.7
2024/03	741	-1.3	7.5	179	-35.1	8.5	43	3.4	16.4	84	6.4	2.8	127	39.2	7.1	102	14.2	13.1
2024/04	816	24.9	10.1	189	-20.8	6.1	51	50.5	18.3	84	45.5	0.1	163	84.6	28.6	121	30.9	18.4
2024/05	841	13.3	3.0	225	-20.4	18.9	44	-22.0	-12.3	78	23.0	-6.8	162	70.2	-0.8	113	25.3	-7.2
2024/06	744	4.1	-11.5	152	-28.3	-32.5	40	-21.8	-8.9	71	-1.4	-9.1	148	33.7	-8.7	125	22.1	10.8
2024/07	799	29.2	7.3	159	-10.8	4.7	45	37.6	10.9	77	33.0	8.7	169	74.2	14.2	122	34.5	-2.6
2024/08	807	20.3	1.1	149	-22.8	-6.6	38	-3.5	-14.9	90	22.7	16.4	187	76.4	10.8	110	16.7	-9.3
2024/09	883	12.1	9.4	238	-13.5	60.3	44	-4.1	15.1	93	28.8	3.4	178	38.5	-4.5	112	21.8	1.5
2024/10	994	37.4	12.6	325	31.6	36.4	56	25.4	26.9	105	57.9	13.5	158	62.2	-11.2	109	17.5	-2.6
2024/11	884	20.5	-11.1	180	-6.2	-44.7	58	14.6	4.4	104	40.0	-1.7	157	24.5	-0.8	127	44.5	16.8
2024/12	841	25.8	-4.9	170	-7.2	-5.6	72	133.9	24.5	80	30.8	-22.7	152	45.7	-3.0	118	36.4	-7.3
2024	9,758	19.8		2,366	-9.6		567	15.3		1,016	28.1		1,826	54.1		1,344	27.3	
2025/01	717	-6.7	-14.6	131	-45.3	-22.7	65	62.9	-10.4	87	23.4	8.7	124	7.9	-18.6	109	13.4	-7.7
2025/02	847	22.8	18.0	161	-2.1	22.9	63	72.1	-2.6	89	10.0	2.8	139	17.5	12.3	139	53.5	27.7
2025/03	925	24.8	9.3	198	10.6	22.5	78	82.9	23.7	91	9.1	1.9	152	20.2	9.6	152	48.1	9.1
2025/04	980	20.1	5.9	211	11.5	6.9	65	28.6	-16.8	89	6.0	-2.7	180	10.3	18.0	171	40.8	12.6
2025/05	915	8.8	-6.6	169	-24.8	-19.8	51	14.2	-22.1	88	12.5	-1.1	197	22.1	9.7	160	42.1	-6.3
2025/06	901	21.0	-1.6	132	-13.4	-22.3	56	39.3	11.1	97	37.4	11.1	182	23.0	-8.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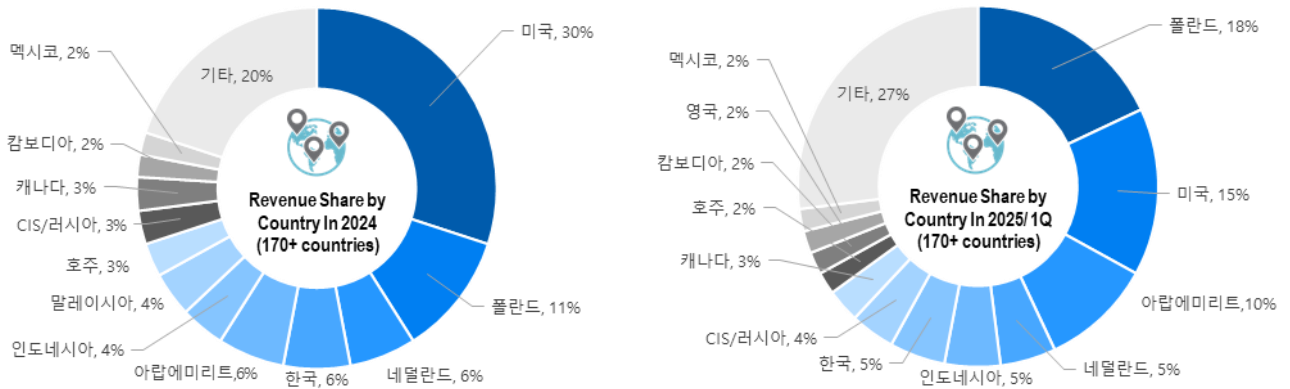
주: HS CODE 3304, 3305, 3303, 3307 의 합산, 자료: TRASS,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중동·중남미 진출 본격화, 신규 지역 매출 기여 시작

중동 지역은 5월경 자회사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초도 물량을 출하했으며, 약 1~2 주 지연 끝에 7월 초 현지 도착을 완료했다. 해당 물량은 아직 판매로 이어지지 않아 2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3분기부터 매출로 인식될 전망이다. 전쟁 여파로 수요 측면에서 다소 영향을 받았으나, 현지 자회사는 본격적인 유통 세팅을 시작한 상황이며, 향후 1년간 매출 드라이브가 집중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분기부터 중동 매출이 본격화되며, 신규 지역에서의 성장이 실적에 기여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남미 시장은 8월부터 현지 인력을 파견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빠르면 3분기 말부터 수출이 시작될 전망이다. 2025년 하반기부터 중남미 실적이 본격 반영될 경우, 지역 다변화에 따른 실적 모멘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7] 2024년 전제 및 2025년 1분기 권역별 매출 비중 [연결 기준]



자료: 실리콘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메디큐브·달바 성장, 코스알엑스 회복 시동! 브랜드 믹스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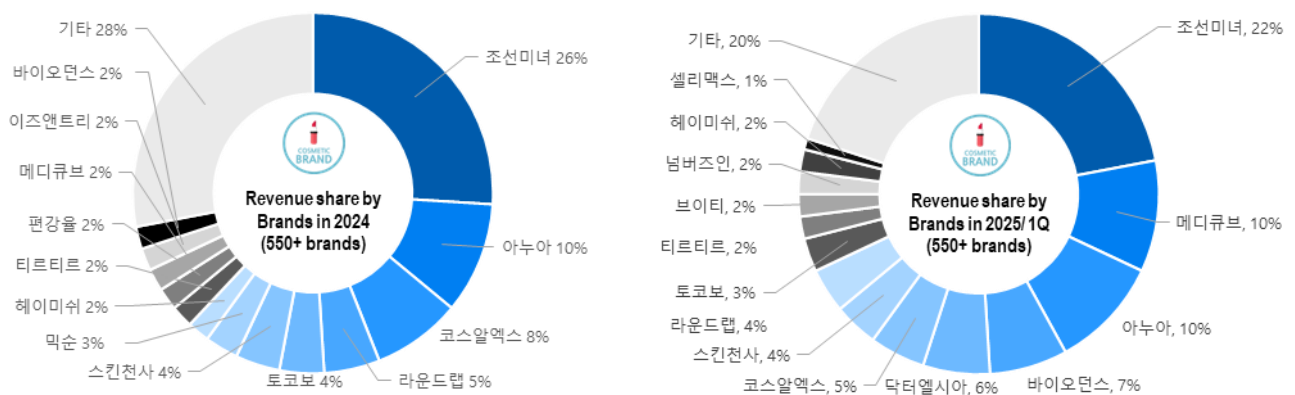
2025년 2분기 실리콘투를 통한 두드러진 성장 브랜드는 달바, 셀리맥스, 퓨리토서울로, 기존에 꾸준히 성장 중인 메디큐브, 바이오던스, 닥터엘시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특히 달바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에서의 독점 유통 계약에 더해, 유럽 내 부츠 입점 논의가 진행 중으로, 1분기 대비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코스알엑스는 2024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물량이 감소했으며, 이는 글로벌 직접 진출 확대 시도, 스네일 라인의 제품 라이프사이클 진입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2분기부터 협업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고, 3분기부터는 물량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미국 시장 모두에서 조선미녀, 메디큐브, 아누아 등 기존 상위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 중심의 유통 구조가 양 지역 모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리콘투를 통한 브랜드 선호도 역시 기존 탑 10 브랜드 중심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간 인기 브랜드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러시아·CIS에서는 헤어 제품의 선호도가 높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토코보 브랜드가 적극적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상위권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다.

동사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지역별 트렌드 대응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신흥 브랜드 중심의 고성장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중이다.

[Fig. 8] 2024년 전체 및 2025년 1분기 브랜드별 매출 비중 [연결 기준]



자료: 실리콘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ig. 9] 실리콘투 연도별 TOP 10 브랜드 순위

▲ - ▼ 전년 비 순위 변동 TOP10 신규 진입 브랜드

No.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분기
1	COSRX -	COSRX -	주산제약 ▲	주산제약 -	주산제약 -
2	SOMEBYMI -	SOMEBYMI -	COSRX ▼	ANUA ▲	medicube* ▲
3	Pyunkang Yul -	Pyunkang Yul -	Pyunkang Yul -	COSRX ▼	ANUA ▼
4	heimish -	주산제약 ▲	heimish ▲	R*UND LAB ▲	Biodance ▲
5	Bt -	heimish ▼	SOMEBYMI ▼	TOCOBO ▲	Dr.Althea ▲
6	innisfree -	Bt ▼	ANUA ▲	TIRTIR ▲	COSRX ▼
7	Dr.Jart+ -	ETUDE ▲	rom&nd ▲	SKIN1004 ▲	SKIN1004 -
8	Huxley -	rom&nd ▲	TOCOBO ▲	Pyunkang Yul ▼	R*UND LAB ▼
9	ETUDE -	innisfree ▼	R*UND LAB ▲	heimish ▼	TOCOBO ▼
10	LANEIGE -	MIGUHARA ▲	SKIN1004 ▲	numbuz:n ▲	TIRTIR ▼

자료: 실리콘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Fig. 10] 본사 해외 및 해외 창고 규모에 따른 재고 보유 현황

- 본사 및 해외법인 창고 규모에 따른 재고 보유 현황
- 총 약 2,000억 원 수준의 사입 재고 운용



+1,700억 AT WAREHOUSES WORLDWIDE **+300억** IN TRANSIT

자료: 실리콘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리콘투 (25772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3,429	6,915	11,397	14,700	17,000	
매출원가	2,278	4,587	7,510	9,700	11,180	
매출총이익	1,151	2,328	3,887	5,000	5,820	
판매비	673	953	1,459	1,800	2,030	
영업이익	478	1,376	2,427	3,200	3,790	
EBITDA	515	1,433	2,484	3,257	3,847	
영업외손익	3	111	23	10	0	
외환관련손익	-7	102	42	15	0	
이자손익	0	-41	-18	23	43	
관계기업관련손익	15	13	32	14	13	
기타	-5	37	-33	-42	-5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81	1,487	2,450	3,210	3,790	
법인세비용	101	280	500	650	760	
계속사업순손익	380	1,207	1,950	2,560	3,030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80	1,207	1,950	2,560	3,030	
지배지분순이익	380	1,207	1,950	2,560	3,030	
포괄순이익	381	1,263	2,006	2,616	3,085	
지배지분포괄이익	381	1,263	2,006	2,616	3,085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영업활동 현금흐름	-185	601	1,254	1,726	2,110	
당기순이익	380	1,207	1,950	2,560	3,030	
감가상각비	37	57	57	57	57	
외환손익	0	0	-42	-15	0	
중속, 관계기업관련손익	-15	-13	-32	-14	-13	
자산부채의 증감	-670	-652	-640	-824	-935	
기타현금흐름	84	2	-39	-39	-29	
투자활동 현금흐름	-184	-721	-646	-417	-782	
투자자산	-47	-65	-159	-116	-81	
유형자산 증가 (CAPEX)	-183	-758	-200	-100	-600	
유형자산 감소	55	124	14	13	13	
기타현금흐름	-9	-22	-301	-215	-115	
재무활동 현금흐름	329	808	-1,135	-191	-335	
단기차입금	367	910	-996	-210	-210	
사채 및 장기차입금	20	4	-24	-10	-10	
자본	7	9	0	144	0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64	-115	-115	-115	-115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0	0	1,353	-1,623	-83	
현금의 증감	-40	688	827	-506	909	
기초 현금	212	172	860	1,687	1,181	
기말 현금	172	860	1,687	1,181	2,090	
NOPLAT	478	1,376	2,427	3,200	3,790	
FCF	-368	-156	1,054	1,626	1,510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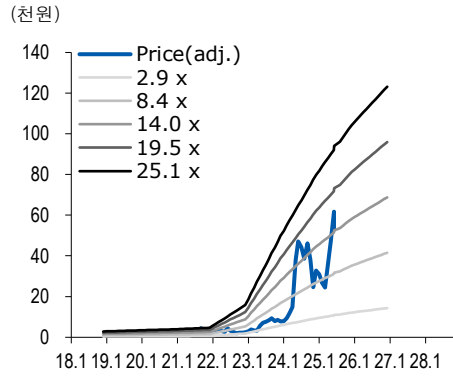
-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증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유동자산	1,364	2,971	5,042	5,839	8,030	
현금및현금성자산	172	860	1,687	1,181	2,09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33	504	735	875	1,012	
재고자산	785	1,459	2,100	3,000	4,000	
비유동자산	789	1,607	1,895	2,040	2,651	
유형자산	541	1,065	1,194	1,224	1,754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 자산	162	212	349	451	521	
기타투자자산	13	38	60	74	85	
자산총계	2,153	4,578	6,936	7,879	10,680	
유동부채	742	1,893	828	460	18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0	83	137	79	63	
단기차입금	550	1,451	451	251	51	
유동성장기부채	1	0	0	0	0	
비유동부채	61	68	1,487	38	30	
장기차입금	36	1	1	1	1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803	1,962	2,315	498	214	
지배지분	1,350	2,616	4,621	7,381	10,466	
자본금	303	305	305	308	308	
자본잉여금	302	308	308	450	450	
이익잉여금	708	1,915	3,866	6,426	9,456	
비지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1,350	2,616	4,621	7,381	10,466	
순차입금	315	678	-1,455	-1,369	-2,599	
총차입금	638	1,552	532	312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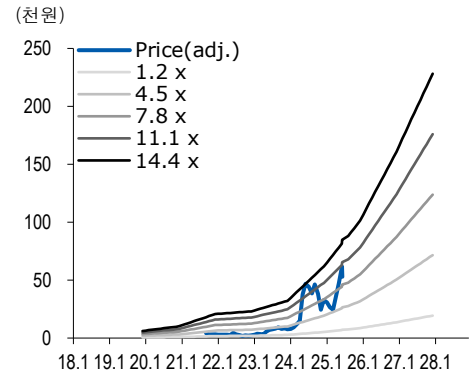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EPS	631	1,990	3,188	4,162	4,918	
BPS	2,235	4,297	7,047	11,181	15,854	
EBITDAPS	854	2,362	3,844	4,941	5,827	
SPS	5,687	11,399	17,635	22,299	25,751	
DPS	0	0	0	0	0	
PER	9.6	14.5	16.6	12.7	10.8	
PBR	2.7	6.7	7.5	4.7	3.3	
EV/EBITDA	7.7	12.7	12.4	9.5	7.7	
PSR	1.1	2.5	3.0	2.4	2.1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증가율 (%)	107.5	101.7	64.8	29.0	15.6	
영업이익 증가율 (%)	235.8	187.8	76.4	31.8	18.4	
지배순이익 증가율 (%)	240.8	217.6	61.5	31.3	18.3	
매출총이익률 (%)	33.6	33.7	34.1	34.0	34.2	
영업이익률 (%)	13.9	19.9	21.3	21.8	22.3	
지배순이익률 (%)	11.1	17.5	17.1	17.4	17.8	
EBITDA 마진 (%)	15.0	20.7	21.8	22.2	22.6	
ROIC	35.2	53.2	57.7	55.8	49.6	
ROA	22.1	35.9	33.9	34.6	32.6	
ROE	32.9	60.9	53.9	42.7	34.0	
부채비율 (%)	59.5	75.0	50.1	6.8	2.0	
순차입금/자기자본 (%)	23.3	25.9	-31.5	-18.6	-24.8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67.2	24.7	45.9	149.4	3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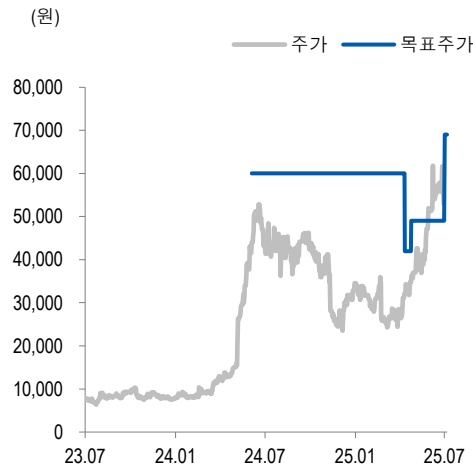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실리콘투 (25772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7-04	BUY	69,000	1년		
2025-04-28	BUY	49,000	1년	-1.87	26.12
2025-04-15	BUY	42,000	1년	-21.01	-17.26
2024-06-07	BUY	60,000	1년	-39.62	-12.00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이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4.2
Hold(중립)	5.8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07-04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이승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